

제415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6월18일(화)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간사 선임의 건
-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박수현 의원 외 169인 발의)(의안번호 2200467)
-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추가)

상정된 안건

1. 간사 선임의 건	11
o 간사(임오경) 인사	11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2
2.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박수현 의원 외 169인 발의)(의안번호 2200467)	12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15
3.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15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전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22대 국회 전반기 첫 회의인만큼 위원님들 간에 인사를 나누신 후에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부산 북구갑 전재수입니다.

먼저 22대 국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은 문체위원회 첫 회의입니다만 문체위 첫 회의를 국민의힘 위원들이 전원 불참하신 가운데 열게 돼서 국민 여러분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두 아시다시피 제22대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해야 할

일이 많아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보더라도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를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 산적한 현안들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문화예술, 체육, 관광 각 분야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높이고 있는 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창작자 등의 보호 및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한 과제들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기울여서 문화예술인, 체육인, 관광 등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궁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과 체육·관광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공정하고 차별 없는 문화 향유의 기회 보장을 위한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해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힘을 모아서 많은 성과를 내는 위원회가 되도록 위원장으로서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인사 순서는 임오경 위원님부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윤덕 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예.

○**김윤덕 위원** 전주시갑 김윤덕 위원입니다.

국회가 개원한 지가 벌써 3주가 다 되어 가는데요. 국정을 책임져야 되는 여당 의원들께서 아직도 국회에 등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평소에 정부와 또 여당이 외치던, ‘대한민국을 글로벌 문화강국으로 만들겠다’ 또 ‘콘텐츠, 관광, 스포츠로 역동경제를 구현하겠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했는데요. 다 말뿐인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생이 어렵고 또 경제가 어려운 이때에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현재 여당 의원들께서 이런 민생 위기 대책에 대해서 외면하고 또 국회가 해야 될 과업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유감을 표시하고요.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농촌에 살면서 과원이나 채소밭을 가꾸지 않는다면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에 있으면서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건 스스로가 쓸모없는 의원이라는 걸 자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쓸모 있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서 하루빨리 국회에 들어와서 국민들을 위해 함께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요구하고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민형배 위원** 위원장님, 인사를 나눈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이나 자료 요청 그때 하면 되겠지요?

○**위원장 전재수** 예.

다음 우리 임오경 위원님부터 순서대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 광명갑 국회의원 임오경입니다.

21대에 이어 22대에서도 문체위에서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전재수 위원장님 이하 여기 함께하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에 계신 종사자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덕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덕 위원** 전주시갑 김윤덕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구가 전주의 한옥마을입니다. 그래서 전통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전주 출신인데요.

지난 21대에서도 문체위에서 우리 전재수 위원장님 또 임오경 위원님과 함께 활동을 했는데요. 21대에서는 그래도 여야가 갈등이 덜하고 많은 법을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를 해 왔는데요.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뭔가 여야가 힘을 모아서 우리 대한민국이 진심으로 글로벌 문화강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정말 문체위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하신 우리 김재원 위원님 또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 너무 반갑다는 인사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민형배 위원** 반갑습니다. 민형배입니다. 광주 출신입니다.

모든 시민이 문화예술을 즐겁게 향유하고 관광과 체육활동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나라로 가 보자, 이게 제가 문체위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특히 국책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 도시 광주 구현에 관심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문석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양문석 위원** 안산시갑의 양문석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제가 문체위를 선택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3대 악의 축인,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 그리고 일부 정치검사 그리고 조선일보가 저는 대한민국의 3대 악의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악의 축들의 한 축이라도 허물어트리기 위해서 문체위에 지원했습니다.

최근에 기레기 논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기레기 논쟁에서도 여전히 국민들이 사용하는 보통명사로서의 기레기 논쟁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뉴스를 통해서 기레기 논쟁을 막말과 망언으로 몰아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썼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조선일보사와 조선일보사류의 자칭 언론을 향해 검찰 애완견이라고 했다는데’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고요. ‘법조기자를 사칭하는’, ‘조선일보사와 조선일보사류 몇몇 자칭 언론사 소속의 법조기자라고 사칭하는’, 범위가 분명하게 좁혀져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조선일보류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언론 전체를 향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법조기자라고 사칭하는’, ‘검찰청을 오가는’이라고 명확하게 범위를 좁혀 놨습니다. 그런데 언론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발작 중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조선일보 또한 조선일보사와 조선일보류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언론도 제가 조선일보사와 조선일보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가짜뉴스를 전제하고 한 사람을 매도해 나가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경고합니다.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살포하고 그리고 그 가짜뉴스를 축으로 놓고 해설하고 비난하는 바로 이러한 행태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 언론 발전에, 표현의 자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법상의 권리는 가짜뉴스를 살포하고 그리고 그 가짜뉴스를 놓고 해설하는 자유를 준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던져 놓고 그 사실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들어가지만 지금 행태들은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법제화함으로써 그러한 행태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횡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문제위에 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제대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현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기현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이기현입니다. 지역구는 일산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지원했던 이유 그리고 문화체육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짧은 인사말씀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공직생활하면서 해외에 많은 출장을 나간 경험들이 있었고 또 대한민국의 국격을 실질적으로 느꼈던 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세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안보위기가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가 대단히 크게 혼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국격의 기준이 단순히 경제력이나 국방력으로 평가받지만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 모든 문화인류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화적 국격, 문화적 격, 문화적 지도력이 그 나라의 경쟁력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가 굉장히 어려운 위기에 봉착해 있는 이 시점에 한국의 국격을 받쳐 주고 있는 문화적 경쟁력을 더욱더 보강하고 강화시키는 일을 이 자리에서 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빠르게 변창하고 있었던 한국의 문화적 국격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정부에 있었던 문화적 검열 사태들이 정권이 다시 되돌아간 이후에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창기에 있었던 부천 국제만화제에서 ‘윤석열차’ 사건이 있었고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풍자작품 전시가 불허되는 등의 여러 가지 문화적 검열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 지역구 인근에 금정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금정굴에서 있었던,

6·25 전쟁 시기에 있었던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들에 대한 다큐가 EBS에서 불허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런 문화적 겸열의 시대를 다시 맞이하고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고요. 이런 겸열의 시대를 뛰어넘어서 다시 한번 도약하는 대한민국 문화강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원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조계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수시을 지역구의 조계원 위원입니다.

21세기는 문화예술의 시대라고 합니다. 문화예술은 개인과 사회를 풍요롭게 만들고 한국국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원천입니다. 뿐만 아니라 체육과 관광은 국민의 건강과 여가의 원천이며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분야입니다.

문화예술과 체육은 자유와 상상력이 필수조건입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모든 문화예술인과 체육인들이 넘치는 자유와 상상력으로 어떠한 압력과 불편한 간섭 없이 창작과 운동에 전념하고 국민은 그 결과물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저는 의정활동 첫 번째 상임위원회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선택하면서 우리 상임위는 국민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돋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독재와 무지 때문에 그동안 쌓아 온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문화역량이 수십 년 뒤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일원으로서 문화예술과 체육을 정권 유지의 도구로만 여기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천박한 국정운영을 막아서는 역할도 충실히 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국회는 신문법을 언론사 내 편집위원회 설치를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바꾸면서 편집권 독립 관련 기능은 권고 수준으로 축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 이후 신문법을 다시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신문법이 편집규약과 편집위원회 설치를 강제사항으로 두지 않아 신문 편집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여기에 뉴스 기사와 광고 배열을 하고 있는 포털사이트 운영사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해 내고 정보공개 규정을 담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윤석열 정권 등장 이후에 언론은 지나친 상업주의와 건설·금융자본 등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이들이 언론 사주가 되어 편집권의 독립과 취재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본질적인 언론 자유의 문제 앞에 봉착해 있습니다. 언론이 자본과 유착된 권력의 문제를 감시하기는커녕 덮거나 유착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원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재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인사 기회를 주신 전재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확실히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22대 국회 첫 상임위인데 정부 여당은 다시 국민을 무시하고 이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어려운 경제에 고통받고 계신 국민의 상황을 헤아리고 해결하는 것이 국회의 본분입니다. 정부 여당은 빨리 국회로 돌아와 일하는 국회, 민생 우선 국회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예술·체육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은 나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곧 국격과 국민의 미래 먹거리로 이어집니다.

여기 계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들께서는 그동안 부단히 노력을 함께해 왔습니다만 개선되지 못한 부분인 기형적인 시장구조와 이에 따른 불공정한 분배 문제, 인식 부족, 기술의 발달에 따른 이용 문제, 미흡한 법 문제 등과 함께 우리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가치 기준의 평가 역시 아직도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현장 출신 예술인으로서 다소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해도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정신으로 이런 문제점을 함께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함께 문화예술 생태계의 정상화를 목표로 손을 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유정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강유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강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나 반가운 상황만은 아닌 듯합니다.

문화·체육·예술은 한국의 미래 자산입니다. 문화자산을 유산이라 부르는 이유는 헤아릴 수 없는 무한의 개념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상 현재 정부는 무방향성과 문화적 뿌리에 대한 물이해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전성기지만 들여다보면 다 파먹은 김장독 꼴입니다.

이에 미래지향적인 문화 정책을 강화하고 한편으로는 한국의 소프트파워 제고를 위해서 감시의 기능과 그리고 지금 부재한 방향성을 국회가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부터 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상실해 가고 있는 미래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자원을 다시 톱아보는 상임위가 되고자 합니다.

비어 있는 여당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문체위 상임위에 배정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은 오셔서 제 할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수현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충남 공주·부여·청양 출신 박수현 위원입니다.

오늘 첫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역에서 만난 한 시민께서 저를 붙잡고 국회다운 국회 그것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 달라 이런 말씀을 오늘 아침에 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비어 있는 앞자리를 보면서 우리 국회가 과연 이러한 시민의 요청에, 요구에 응답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너무나 아쉬움이

큽니다.

각 당의 당리당략, 정치 이런 것들이 국회의 상임위원회, 국회 운영에 앞설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문화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하루빨리 이 자리에 복귀하셔서 이런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청의 말씀과 촉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 지역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입니다. 문체위원이 되어서 이러한 제 지역구에 한정된 문화의 향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정말 세계 10위권 수준의 경제강국, 세계 5~6위권의 군사대국뿐만 아니라 문화 향기가 가득한 그러한 나라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김구 선생님의 말씀을 언뜻 떠올립니다. ‘내가 바라는 조국은 경제대국도 아니오, 군사대국도 아니라 세계가 따를 수 있는 문화의 향기가 높은 나라다’라고 하는 김구 선생의 말씀이 가득 찬 문체위 상임위원회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늘 지하철 시민의 말씀을 우리 국회가 잘 받들 수 있는 그러한 상임위원회를 우리 문체위가 선도적으로 모범적으로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빠른 문체위 출석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다음은……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우리 전문위원회 직원분들 소개 먼저 하고 다른 분들 말씀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보좌할 전문위원회 직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원모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환철 전문위원입니다.

김충섭 입법심의관입니다.

김려진 행정실장입니다.

다음은 입법조사관과 주무관 등 직원들이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회 직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갈 텐데요,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민형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민형배 위원 자료제출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기 전에, 정말 오늘 안타깝습니다. 22대 첫 상임위인데 이렇게 앞자리가 다 비어 있고 정부위원회도 완전히 비어 있고, 이게 정말 검찰독재 정권의 민낯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얼른 국회로 돌아오시기를 촉구합니다.

특히 오늘 안건으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인데 이것은 여야가 입장이 다를 수 없는 것 같은데 국가유산청장과 그 직원들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로서는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러니까 잘못하면 친일정부니 친일파라는 이런 소리를 시민들께서 조롱하면서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이런 일에는 꼭 국회에 출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꼭 이런 자료를 제대로 제출해 달라고 한번 촉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여러 특징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는 되게 야만적이다라는 겁니다. 야만은 문화의 다른 편, 반대편에 있는 것을 뜻할 수 있을 겁니다. 행정도 문화행정도 퇴행적이고 문화예술 현장은 붕괴 직전입니다. 특히 문화예술 활동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아주 세게 억압하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이 앞장서서 지금 언론을 탄압하고 있는 것인데요. 언론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까지 하는 이런 나라 참 보기 힘든 희귀한 나라입니다.

군부독재 때도 보도국과 편집국을 그렇게 제 집 안방인 것처럼 해집고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검찰독재의 야만을 입증하는 결정적 장면인데요.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 일지, 사유, 압수물 목록 일체의 제출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는 지난 총선 때 문체부가 관권선거를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총선 사전투표를 앞두고 정부부처의 공무원들이 대통령 정책 홍보영상을 모두 볼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게시하도록 했고 협조 요청도 하고. 오늘 사실 출석을 했어야 이것을 따져 물을 수가 있는데 안 되어 있으니까 다음 회의 때 확인하기로 하고 관련 자료 일체를 제가 요청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정치공작을 위해서 국익을 내팽개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물타기 하겠다고 전직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를……

자료제출 요구는 제한시간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지요?

○위원장 전재수 예.

○민형배 위원 김정숙 여사를 끌어들입니다. 기내식에 6000만 원 넘게 사용했다고 완전 허위사실을 퍼트리는데요. 사실은 부대비용까지 포함해서 105만 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확인한 바는 이렇습니다.

첫째, 전용기는 승무원이 없어서 별도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 김정숙 여사가 탔던 2호기는 여태껏 기내식을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즉 냉장고와 오븐 등이 없었고 이를 갖추는 데 드는 비용이 따로 필요하게 됩니다. 세 번째, 기내식을 현지에서 조달하면 원래 비용이 좀 더 많이 든답니다.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탔던 2호기는 어찌 보면 옵션 없는 빈집과 같습니다. 저도 이것을 몇 번 타 봤기 때문에 상태를 좀 압니다.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게 없는 원룸 형태 같은 것인데요. 일반 항공기의 풀옵션 상태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특히 비행 중의 식대는 여행사 계약처럼 개런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40명이 먹든 100명이 먹든 비용이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즉 1인 단가를 산정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인 겁니다. 굳이 저희들이 산정을 해 보니까 김정숙 여사의 기내식 비용은 네 끼에 수십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세 자료를, 산출 근거를 제출해 주지 않고 있어서 문체부에 지금 이 자료를 다시 요청합니다. 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료제출 요구 목록을 드릴 테니까요 꼭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

고 다음번 회의 때는 장관을 반드시 출석시켜서 현안질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전재수 예.

○민형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강유정 위원님.

○강유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 비례대표 강유정입니다.

제22대의 국회 문체위 첫 회의를 이렇게 의사진행발언부터 시작하게 되어 유감인데요. 문체부에도 유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오후 원래 사무실에서 문체부 문화정책관과 저작권국의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원래라면 지난 4일 완료되었어야 될 업무보고였습니다. 문화정책관과 저작권국에서 갑자기 다른 일정을 이유로 참석이 어렵다고 하면서 이미 한 번 연기된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에 문체부로부터 일방적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업무보고를 진행할 수 없는 이유가 국민의힘 때문이라는 겁니다.

본 의원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추경호 원내대표실에서 당내 정책위를 통해 소관 부처에 연락해 개별적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다 합니다. 본 위원 외에도 이기현 위원, 김재원 의원실 역시 예정되어 있던 업무보고를 일방적으로 취소당했습니다.

이렇게 여당 원내대표실이 정부부처를 압박해 야당 위원들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막은 것은 현정사상 처음의 업무방해입니다. 황당하게도 국민의힘은 당내 특위에 차관들을 참석시켜 유사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부처가 국민의힘 발아래에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할 수 없을 아주 오만한 행태입니다.

문체부에는 문화예술계 예산 삭감을 비롯해서 영발기금 부족, 출판계에 만연한 매점계약 그리고 청와대 정비사업 등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은 문체위원으로 다양한 현안에 대해 문체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알아봐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하고 거부당한 겁니다.

여당 원내대표가 멈추게 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 업무보고를 멈추게 한 게 아니라 국회를 멈추게 한 겁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계를 멈춰 서게 한 겁니다.

문체부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국민의힘의 당직자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당에서 업무보고를 못 하게 해 진행할 수 없다는 이 변명도 의원실에 양해를 구할 게 아니라 상임위장에 나와서 해야 합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겪은 문체부의 의원실 업무보고 취소는 현정상 전례가 없는 것으로 입법활동 방해 및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행정부의 폭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일방적인 업무보고 취소 사태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여당 원내대표는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문체부는 비공식 지시에 어떤 논의 과정과 근거를 가지고 취소를 한 것인지 상임위장에 출석해서 밝히도록 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억지로 못 하게 막는 국민의힘에게도 유감 표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박수현 위원님.

○**박수현 위원**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잠깐 짧게만 덧붙이겠습니다.

김정숙 여사에 대한 국민의힘의 허위사실에 의한 정치공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내식 비용의 논란이 있고 그 이전에 셀프 초청이라고 하는 한 축이 또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셀프 초청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자료 요청을 간략하게 하고자 합니다.

2018년 7월에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의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까만 정상회담은 모든 공식 수행원이 참석하는 공식 확대 정상회의와 그 전후로 배치되는 정상 간끼리의 대화, 다시 말해서 소인수 정상회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공식 정상 회담에서는 사전에 조율된 주제를 가지고 서로 약속대로 발언을 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소인수 정상회담은 그곳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그야말로 실질적 정상 간의 대화를 하는 실질적인 정상회담의 자리이고 그 자리에는 대사나 장관 등 1, 2명이 배석을 하지만 그 배석자는 발언할 수 없는 그야말로 기록을 위한 참석이고 실질적으로 정상 간의 대화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인수 회담에서 인도의 모디 총리는 바로 4개월 후에 있는 디왈리 축제와 허황후 공원 기념식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 참석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마 인도의 신동방 정책과 대한민국의 신남방 정책이라고 하는 국가의 이익이 잘 맞아 떨어지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양국 정상 간의 교류와 우호를 굉장히 깊게 하고자 하는 인도의 국가 전략적 차원의 요청이었다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4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위해서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를 다시 방문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저희가 귀국한 이후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차례 우리 최정상급의 사절단 파견을 계속 요청받았고, 우리가 결정을 못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고 있을 때 시간은 다가오고 거기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는 인도 외교부는 당연하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장관들을 초청하는 아주 루틴한 외교 일정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안 했다면 인도 외교부의 직무유기겠지요. 그래서 외교부장관을 초청했고 우리나라 외교부장관이 일정이 안 되기 때문에 문화부장관을 초청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루틴하게 초청장이 온 것입니다.

그 이후 그런 한 축의 외교일정이 진행되는 중에 청와대에는 최고위급 사절단 파견을 계속 요청하는 인도 모디 총리의 선의의 요청과 간절한 바람에 응답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익에 부합하겠다는 취지에서 최고위급으로 김정숙 여사의 파견을 결정하게 됩니다.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장관 앞으로 온 초청장은 루틴한 것이고 또 하나의 정무적 판단으로 김정숙 여사의 파견을 결정하면서 10월 26일 날 김정숙 여사 앞으로 초청장이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투 트랙의 진행 상황을 다 알면서도 일방적으로 지금, 청와대 측이 설명하고 있는 이러한 고위급의 정무적 판단에 대한 부분은 썩 빼고 그 앞에 있는 루틴한 인도 외교부의 당연한 진행에 대한 것만 강조하면서 이것이 셀프 초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너무나 악의적이고 정략적인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민형배 위원님께서 기내식과 관련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저는 이 셀프 초청과 관련해서 김정숙 여사 앞으로 온 초청장 사본, 그것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제가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 위원회에서, 참석한 위원으로서 저는 문체부에 정부에 김정숙 여사 앞으로 온 초청장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제대로 제출될 수 있도록 위원회…… 전문위원회에서 잘 챙겨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1시38분)

○위원장 전재수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교섭단체를 대표해서 위원장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간사 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국회법 제50조에 따르면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위원회에서 간사로 선임하여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해 주신 임오경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오경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간사(임오경) 인사

○위원장 전재수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임오경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간사로 선임된 임오경 위원입니다.

먼저 국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정부 여당의 입법권 침해로 인해서 비록 22대 국회의 시작이 국민들에게는 반쪽짜리로 비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 정부를 견제해야 될 야당의 책무로서 일하는 국회, 성과 있는 문체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우리 문체위는 윤석열 정부의 이념 논쟁으로 인한 문화 정책의 후퇴, 영화·관광 기금의 재원 결손 문제, 언론중재법, 신문법 개정 혼란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분야는 창작자들의 재능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간섭이 끊이지 않고 예고 없는 예산 삭감으로 현장의 종사자들은 코로나19 때보다 더 힘든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 문체위 야당 간사로 선임된 만큼 우리 문체위가 현장 중심의 전반기 최고의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문화체육을 향유하는 데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전재수 위원장님 이하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1시40분)

○위원장 전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박수현 의원이 발의한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지 2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안건의 시의성을 고려하여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서 오늘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박수현 의원 외 169인 발의)(의안번호 2200467)

(11시41분)

○위원장 전재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의 발의자이신 박수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겠습니다.

○박수현 의원 박수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민족의 문제인 이 결의안을 대한민국 국회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하고 또 모든 구성원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이렇게 반쪽 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 제안설명과 대표발의를 할 수 있도록 양보해 주신 임오경 간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전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제안 취지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 내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제국주의 시절 자행되었던 한국 및 주변국 국민에 대한 강제노역과 인권침해 사실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은 세계유산적 가치를 에도시대로만 한정하여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자행했던 강제징용 등의 역사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일본 정부는 군함도 등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세계유네스코위원회로부터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 전략을 마련할 것을 권고받았으며 일본 대표는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노역한 사실과 희생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석 전략에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약속은 현재까지 이행되고 있지 않으며 이런 정황으로 미뤄봤을

때 사도 광산의 등재 또한 군함도의 등재 전례를 따라 제국주의가 자행했던 자신들의 과오를 숨길 위험이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다음 달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 사도 광산 등재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본 결의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채택되었으나 그동안 일본 정부의 진정한 역사적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는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22대 개원 국회를 맞이하여 일본 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 책상에 배부된 결의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시어 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모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결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우리 국회의, 첫째 사도 광산 등재 재신청에 대한 유감 표명 및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 요구, 둘째 일본 메이지 근대산업시설 등재 관련 유네스코 결정 후속 조치의 성실한 이행 촉구, 셋째 일본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 내용에 한국인 등의 강제노역 증언과 자료 반영 및 강제노역 희생자를 기릴 것 촉구, 넷째 일본 정부의 세계유산 등재 후속 조치 불이행 시 유네스코에 대한 사도 광산 등재 거부 적극 검토 요구 등의 내용입니다.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군함도 탄광 등 일본의 근대산업시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결정한 이후 일본 정부가 동 위원회의 권고와 후속 조치에 따른 한국인 강제동원 사실에 대한 설명과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2022년 일본 정부는 주요 시설이 근대시대에 형성된 사도 광산을 한국인의 강제노역 사실 제외를 위해 대상 시기를 에도시대로 한정하여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등재의 기본 원칙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시기를 자의적으로 한정한 것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하고 유지해야 하는 기념물, 유적, 건물군을 대상으로 한다는 세계유산협약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이후 발생하고 있는 후속 조치의 불이행 등과 관련한 국제적인 논쟁이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과정에서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국제적인 협력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등재 근대산업시설에 대한 유네스코의 권고와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후속 조치 이행 전까지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의 동 결의안은 그 취지가 타당하고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이 결의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동의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 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전체회의 중에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을 요구하고 추가로 심의하자는 임오경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말씀……

○ 임오경 위원 의사진행발언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수 예.

○ 임오경 위원 22대 국회 상임위 운영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정부 여당의 전방위적 방해와 입법권 침해를 일삼고 있는 행태를 개탄하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22대 국회 첫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인데 여당 위원님들은 전원 불출석하고 있고 또한 정부는 여당의 지휘 통제를 받아 입법기관이 요청한 업무보고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야당 간사로서 강력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는 윤석열 정부의 이념 논쟁으로 인한 문화 정책의 후퇴, 정부의 부과금 폐지에 따른 영화발전기금·관광기금의 재원 결손 문제, 언론중재법·신문법 개정 협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또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만 해도 정부가 가장 앞장서서 유네스코에 적극적으로 유감의 입장을 표명하고 대응해야 할 사안들입니다.

그러나 그 소관 부처인 국가유산청은 이를 알고도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국회 무시이며 더 나아가 국민을 무시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체부는 야당 위원들이 요구하는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불응하면서도 여당에 꾸려진 TF에 나가 당정 협의라며 업무보고를 두 차례나 진행했습니다.

여당 위원만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에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원장님, 22대 국회가 시작된 만큼 빠르게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고 협안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빠른 시일 내에 부처가 참석하는 업무보고를 개최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추가로 안건을 상정하여 국무위원 및 정부 위원 요청의 건을 의결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위원회가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나 빠른 시일 내에 상임위 개최가 되었을 때 정부부처가 출석하지 않는다면 국회법 제65조 1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현안 청문회를 개최하여 이에 대해서도 불용 시 국회 증감법 12조에 따라서 불출석의 죄를 물어 염중하게 다스려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당 위원님들께도 촉구합니다.

국민들이 일을 하라고 국회의원으로 뽑아 준 것이지 국회 운영 방해하라고 뽑아 준 것은 아닙니다. 일하기 싫으면 본인들만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일하겠다고 하는 야당 위원들까지, 국회의원들도 일을 못 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더 이상 봉니와 억지로 국회 발목 잡기 그만하시고 국민들께서 일하라고 뽑아 주신 민의를 기억하며 자리로 조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11시51분)

○위원장 전재수 조금 전에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을 추가해서 심의하자 는 임오경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국회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찬성을 해 주셨습니다.

동의자 임오경 위원님 외에 다른 위원님들의 찬성이 있으셨기 때문에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11시52분)

○위원장 전재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현안 등에 관하여 문체부 및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121조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차관 및 국가유산청장에게 6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우리 위원회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6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차관 및 국가유산청장에 대해 우리 위원회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강유정 김윤덕 김재원 민형배 박수현 양문석 이기현 임오경 전재수 조계원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전문위원 정환철

입법심의관 김충섭

【보고사항】

○위원 선임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강유정 김윤덕 민형배 박수현 양문석 이기현 임오경 전재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강승규 김승수 김예지 배현진 이달희 진종오	국민의힘	2024. 6. 10.
김재원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의안 회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0. 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0. 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0. 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0. 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3)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0. 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6)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1. 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8)

2023회계연도 결산

(2024. 5.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0051)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4. 5.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005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1.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3. 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3. 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1)

이상 11건 6월 11일 회부됨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1. 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1. 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1. 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1. 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18)

이상 4건 6월 12일 회부됨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2. 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2. 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3)

이상 2건 6월 13일 회부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3.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1)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3.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7)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이행 촉구 결의안**

(2024. 6. 13. 박수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467)

이상 3건 6월 14일 회부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4.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4.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8)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2024. 6. 14. 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1)

이상 3건 6월 17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4. 5. 30.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3)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2024. 5. 31. 이현승 의원·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0)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

(2024. 5. 31.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5)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2024. 6. 5.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7)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4. 6. 10.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3)

이상 5건 6월 1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2024. 6. 11.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8)

6월 1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24. 6. 11.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43)

6월 1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24. 6. 12.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9)

6월 1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4. 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14)

6월 1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공포일자	소관부처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505호	2024. 5. 14.	문화체육관광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505호	2024. 5. 1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05호	2024. 5. 14.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	2024. 5. 7.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7호	2024. 5. 7.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제34492호	2024. 5. 7.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2호	2024. 5. 7.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488호	2024. 5. 7.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34488호	2024. 5. 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487호	2024. 5. 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4492호	2024. 5. 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34492호	2024. 5. 7.	문화체육관광부
국립 국악·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제34492호	2024. 5. 7.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4488호	2024. 5. 7.	문화체육관광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487호	2024. 5. 7.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공포일자	소관부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66호	2024. 4. 30.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34465호	2024. 4. 30.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4436호	2024. 4. 2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4449호	2024. 4. 2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4449호	2024. 4. 23.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34364호	2024. 3. 26.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34312호	2024. 3. 1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4302호	2024. 3. 1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550호	2024. 5. 1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50호	2024. 5. 1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50호	2024. 5. 1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제550호	2024. 5. 17.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546호	2024. 5. 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545호	2024. 4. 23.	문화체육관광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4호	2024. 3. 29.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42호	2024. 3. 2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541호	2024. 3. 25.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0호	2024. 3. 22.	문화체육관광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9호	2024. 5. 7.	국가유산청

○ 예비심사기간 지정

2023회계연도 결산

(2024. 5.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0051)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4. 5.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0052)

이상 2건 6월 11일 예비심사기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3회계연도 결산” 상정 30분 전까지로 지정됨

○ 계획서 송부

2024년도 법률안 국회제출 수정계획

(2024. 6. 13. 정부 제출)

6월 14일 송부됨

○ 보고서 송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보고

(2024. 5. 30. 감사원장 제출)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

(2024. 5. 31.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국회감사요구사항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의 이사장 해임건의 등 규정 위반에 대한 한국언론진흥재단 대상 감사」 감사결과보고서

(2024. 6. 10. 감사원장 제출)

이상 3건 6월 11일 송부됨